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0.5.18.(월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(02-2100-2880)	담 당 자	국제협력팀 사무관 박 성 빈(02-2100-2891)	

제 목 :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

-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 마련
-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, 금융인프라 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

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(2020~2022)을 심의하였습니다.

*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📎 [붙임1]

금융위원회는 '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,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습니다.

○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('09년)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,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.

- 이번 기본계획안은 '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'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,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,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.

대과제1.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

- 핀테크 혁신,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,
- 연기금(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)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.

대과제2. 금융인프라 국제화

-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·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,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.
-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,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.

대과제3.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
-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.
-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 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·의결(5.27일)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,
 -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, 매해 작성하는 ‘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’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**(개요)**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「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기구
 -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

- **(구성)** 금융위원회 위원장(위원장), 민간(10명), 정부(5명), 유관기관(6명) 등 총 21명으로 구성(임기 2년)
 - * 당연직 정부위원(5인) : 금융위 위원장, 기재부 차관, 산자부 차관, 서울시장, 부산시장
 - 유관기관 위원(6인) : 은행·금투·생보·손보 협회장, 한국거래소 이사장, KIC 사장

- **(추진경과)** '08.4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관련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의 수립을 심의
 - ① '08.8월, 「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08~'10) 수립
 - '08.9월,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금융중심지 발전 및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에 위한 지원체계 구축
 - '09.1월, 서울·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
 - ② '11.9월, 「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11~'13) 수립
 - * 자본시장 고도화,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, 금융인프라 선진화,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
 - ③ '14.10월, 「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14~'16) 수립
 - *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, 금융산업 국제역량 제고, 국제적 금융인프라, 금융중심지 활성화
 - ④ '17.10월, 「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17~'19) 수립
 - * 자본시장 국제화,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,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, 금융중심지 내실화

비 전**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****중점전략**

-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
-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
-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: ASEAN 진출 확대

추진 과제**①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지원**

- 핀테크 혁신
- 자산운용시장 활성화
- 공적기금 해외투자 내실화

② 금융인프라 국제화

- 금융 데이터 활용도 제고
- 자금세탁 방지 제도 제고
- 외환제도 개선
- 금융규제 국제적합성 제고

③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
-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
- 지역별 전략 수립
- 금융중심지별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